

2017 아트세닉 스트리트아트프로젝트
프로젝트 공모



참신한 아이디어로 뭉친 프로젝트를 찾습니다.

공모기간 : 2017년 4월 한달간

진행장소 : 제주시 원도심 내 거리 및 야외공간

선정작가 : 개인 혹은 단체 (2명이상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프로젝트)
단, 사례비는 예산의 한계상 4명분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선정분야 : (문화예술분야) 제한없음

단,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분들의 협업프로젝트 선호
도외참가자 교통비, 숙박지원 불가

2017주제 : *** 유토피아를 꿈꾸다 (Draw me your Utopia) ***

반드시 주제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셔야 합니다.

진행일정 : 5-10월 (월2-3회) 총 15개의 프로젝트 진행 예정

지원범위 : 소정의 사례비, 스텝지원, 영상, 사진, 재료비 지원

지원자격 : 커뮤니티 원칙에 동의하에 프로젝트 공모가 가능합니다.(아래 첨부)

모든 프로젝트 진행자는 전달 마지막주 토요일에 있는 커뮤니티파티에 참석하셔서,
프로젝트 소개를 해주셔야 합니다.(자유형식)

아트세닉 홈페이지상(www.theartscenic.com)의 커뮤니티 가입필수

_ 서로의 작업을 소개하고 협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지속적인 협업을 위하여 꼭 부탁드립니다.

지원방법 : 아트세닉 홈페이지에서 '기획서 안'을 다운로드 하시고, 작성후, 아래 메일로 발송
artscenic@naver.com

일정조율 : 기획서 작성시 원하는 일정을 기입해 주시고,

세부일정조율은 아트세닉 기획부와 협의하에 진행됩니다.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6길16지하 아트세닉 (064-755-8415)

홈페이지 : www.theartscenic.com

주최 : 복합예술공간 아트세닉

후원 :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스트릿아트 커뮤니티 원칙

- 1.누구나 커뮤니티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위한 어떠한 전제 조건도 없다.
- 2.자기 또는 그룹의 표현에 누구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표현하는 자와 수령자의 양쪽 권리와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
- 3.상업적인 목적의 프로젝트는 커뮤니티에서 배제한다.
- 4.커뮤니티는 공동 작업을 중시한다. 이러한 협력을 돕는 소셜네트워크, 공공공간, 작품, 소통수단의 개발, 촉진, 보호하는데 모든 커뮤니티 일원이 함께한다.
- 5.개인 또는 사회의 변화가 개인의 진정한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근본적 참가 윤리를 추구한다.

%2017년 주제

*** 유토피아를 꿈꾸다 (Draw me your Utopia) ***

“내일의 네 세계를 만들어라, 그 변화를 보여주고
우리의 색깔과 아이디어와 뒤섞어 보자...
평범한 모든 것들에게 특별함을 부여하고 변화시키자.
우리가 매일 믿고 있는 것... 유토피아의 꿈을 실현시키자. ”

볼 줄 아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예술이다, 우릴 둘러싼 모든 것들, 컵의 단순한 디자인부터 자동차 유리까지...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특정한 틀 속에 들어가야 한다면 모두 평범해질 뿐이다...

우리의 프로젝트는 이 평범함에 대항하여 창조되었다. 당신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예술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의 각 창작물들이나 몸짓들이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바꾸고 창조해내자.

불과 얼마 전 한국에서 일어난, 수백 만 군중이 거리로 나왔던 집회장면을 기억하는가.

그들의 인식과 관계없이 공중에서 찍은 사진은 그 모습 자체가 예술사진으로 승화되지 않았던가.

보도블럭의 작은 조각이 아이에게는 동화로 변할 수 있고, 버스정류장의 벤치가 만남 또는 교환의 장소가 될 수 있으며

모든 거리가 극장이 될 수 있고, 회색 벽이 하나의 구조물이 될 수 있다.

결국에 사람들은 매일 보던 것들을 향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

참여자 모두에게 우리가 가진 유토피아의 비전을 재창조할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를 맡겨두자.

%%기획노트

제주도는 난개발로 인한 자연파괴, 이주민의 증가로 인한 사회변화, 지나치게 폭등한 부동산시세 등 이례없는 많은 변화의 흐름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 무조건적인 비판이나 한탄보다는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협업하고, 공유하는 계기를 통해 문화예술을 매개로 새로운 섬문화를 이루어 간다면 아름다울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제주에 정착한 모든 문화예술인들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서로 영감을 교환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다양한 영역의 예술인들이 예술을 통한 소통, 상호이해에 도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확장하기 위한 고민을 계속하면서, 2016년도부터 플랫폼으로서의 공간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협업을 통한 작업을 거리로 이끌어내는 스트릿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실현까지 적극적인 참여와 협업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유로운 방식으로 프로젝트의 제안이 오갈 수 있습니다.

* 스트릿아트커뮤니티는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커뮤니티를 표방한다.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젊은 예술인 커뮤니티는 열정적이고 패기 넘치는 대학생 그룹, 일반인 그룹을 포괄적으로 흡수하여 공간과 거리를 가장 창조적이고, 생동감있는 입체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 공간은 플랫폼이며 거리예술은 소스(source)다. 공간을 매개로 생성된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창작의 기회를 넓히고, 협업, 참여를 유도한다. 자유로운 예술표현활동을 통하여 사회 분위기를 전환하고, 보다 주체적인 의식을 가진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일반적으로 스트릿아트가 시각적인 그래피티 혹은 벽화를 의미하고, 거리예술은 퍼포먼스 위주의 공연예술을 의미하는 것처럼 의미가 한정되어 있는데 반면, 여기서 정의하는 스트릿아트는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문화예술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 스트릿아트커뮤니티를 통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뿐만 아니라 장소와 공간에 맞게 반응하고 그곳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커뮤니티를 예술인들로 한정짓지 않고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모든 이들을 포괄하여 함께 행할 수 있도록 열어 놓는다.

* 왜 스트릿아트(거리예술)인가?

거리의 의미에 대한 제고는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는 미디어와 소비사회에서 또 다른 표현 혹은 소통 공간을 제공하며, 도시공간에 관습을 넘어선 문제제기를 하게 된다.

도심의 거리는 예술인을 포함한 모든 지역민들의 표현의 장이 된다.

거리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은 예술적 행위에서 더 나아가 인간적 교류로서의 의미가 있다.

거리라는 불특정다수를 위한 공간은 경계도 없고, 제한도 없다.

이런 불확실성은 개인의 창조성의 근원이기도 하고 사회적 장소의 근원이기도 하다.

창조적 에너지를 통해 개인과 사회는 변화를 만들게 되고 진화하게 된다.

예술가와 관객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고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공간으로서의 거리,

문화적 차이를 벗어난 자유로운 표현의 장으로서의 거리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이는 원도심 재생에 대한 관심의 집중에 답하는 또 다른 문화실험이기도 하다.
일상의 공간인 거리는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예술활동을 펼쳐보일 수 있는 대안공간으로
재탄생함으로써, 문화예술을 향한 사회전반적인 인식과 분위기 전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길 기대한
다.

%%%아트세닉 소개

아트세닉은 제주도 제주시 원도심에 위치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2014년 8월에 활동을 시
작하여, 커뮤니티공간 활성화를 위한 기획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 워크샵, 포럼,
파티, 등의 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